

영원한 도움

소식지 Vol.4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VOL.4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발행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발행처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15라길 2-18

전화 (02) 2171-1611

메일 solph70@hanmail.net

홈페이지 <https://www.solph.or.kr>

인쇄처 세가출판사

비매품

03 권두언 |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마음을 드높이

06 교회와 함께 | 기뻐하십시오!

10 말씀과 함께 | 크하트의 자손들

14 묵상과 나눔 |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17 가톨릭 상식 | 성탄 구유에 마구간 동물들은 꼭 있어야 하나요?

18 책과 함께 |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20 문화 속으로 | 영화 〈언노운 걸〉

모든 이에게 모든 것

24 선교 화보 | 페루

26 선교 이야기 | 페루 선교 30주년, 은총의 발자취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리오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34 선교 체험 | 치유와 나눔의 길
간가리 선교 20주년을 맞으며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42 선교지 소식 | 베트남 · 필리핀 · 카자흐스탄

48 사도직 이야기 | 해돋이 공부방

한마음 한뜻

56 수도회 소식

60 성모자매회 소식

66 수도원 체험 |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68 후원자 명단

70 국내외 선교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루카 4,43



지난 한 달 동안 총원장 수녀님과 선교 여행을 하던 중 페루 간가리에서 페루 선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기념 미사를 주례한 페루 주교님은 “30년 전, 간또 그란데는 마약과 범죄의 위협이 만연하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곳에 지구 반대편에서 고국과 가족, 문화를 뒤로하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따라오신 수녀님들을 보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들을 교회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선교사 수녀님들은 오늘도 사회복지뿐 아니라,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복음화에 힘쓰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선포의 카리스마와 영성을 온전하고 충실하게 살기 위해 봉사하는 성모자매회 회원들, 해마다 이곳을 찾아 가장 작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이들을 낫게 하며, 티 없이 맑은 아이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평신도 선교팀, 그리고 직접적으로 함께할 수는 없어도 기꺼이 나누며 희망을 실천하는 후원자들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기쁜 소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는 신앙의 힘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 건설하고 실천하는”(현대의 복음 선교 13항)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며, 하나의 교회-시노달리타스-임을 느끼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요한 11,52)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한 형제, 자매, 가족임을 고백하며, 있는 자리에서 오늘 또다시 복음 선포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께 “예, 제가 있습니다!” 하며 따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음을 드높이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중에서



2024년 주님 성탄 대축일 제대 앞 구유



“기뻐하십시오!”

글 | 양성부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복음의 기쁨

1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본디의 아름다움이 빛을 냅니다. 곧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는 얼굴의 아름다움이 행복을 퍼뜨리며 빛

을 내는 것입니다(2코린 4,6 참조).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에 따라 우리의 삶을 쇠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자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예언자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증언입니다. **수도자는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 유한성을 지니고, 변두리에서 일상적 투쟁을 하면서 봉헌된 이들은 내면의 기쁨에 의미를 두며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기쁨은 봉헌의 아름다움

“이것이 봉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위로를 모든 이에게 전달하는 기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슬픔 가운데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겪는 어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은 기쁨을 얻어 온전히 그 안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기쁨, 곧 하느님의 위로, 모든 이를 향한 주님의 온유함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분께 위로받고 사랑받는 기쁨을 경험해야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명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이 우리 기쁨의 비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께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발견되고 감동받고 변화됨

축성생활은 주님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내적 태도를 받아들이며, 주님의 성령을 안으로 모시어 그분의 놀라운 논리와 가치 척도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모험과 희망에 함께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선포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이신 진리에 발견



아리 세퍼, 「성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어머니 성 모니카」, 1846년 작품

되고, 감동받고, 변화되는 이들의 겸손하지만 기쁨에 넘치는 확신을 따르십시오. 주님과와의 만남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자아도취에서 벗어나도록 재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 자신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실수록,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으로부터 더욱 벗어나게 이끄시어 여러분이 중심에 있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우리는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재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히포의 아우구스

티노처럼 **참참하지 못한 추구**를 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으로 이끈 참참하지 못한 마음은, 아우구스티노가 찾고 있던 멀리 계신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가까이 계신 하느님, 우리 마음에 가까이 계신 하느님,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추구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목적에 이른 사람처럼 자기 자신 안으로 침잠하지 않고 참참하지 못하여 찾아 헤맸습니다. 진리 추구의 참참하지 못함, 곧 하느님을 참참하지 못하게 추구하면서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알게 하는 일에 찻찻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찻찻하지 못함입니다”.

기쁨, 충실한 ‘예’

하느님을 만나 그분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의 충실함이 위기에 빠진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로 날마다 나서는 이 여정은 불만과 괴로움으로 채워져 우리를 회한에 젖게 하고, 가지 않은 길과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갈망에 빠지게 하여 고독한 길이 됩니다. 관계를 맺고 사랑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소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자신의 인생 깊은 중심을 다시 찾도록 초대받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분의 생명을 우리 자신 안에서 체험할 때, 하느님의 ‘너(Thou)’와 모든 타인을 지향하는 사랑을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바로 충실함입니다. 충실한 제자직은 실천된 은총과 사랑,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길을 나서고, 십자가 없이 건설하고,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

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존재가 됩니다”.

제자직에 충실함은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경험으로 생겨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복음에 기쁘게 ‘예’라고 답하며 서로를 지탱해 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신앙심을 고취하고 길러 주며 활기 있게 합니다. 또한 하느님 말씀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이 하느님과 우리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느님의 논리로 돌아서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 주는 것도 하느님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가 성소를 새롭게 하고 기쁨과 열정으로 채워 사랑 활동의 증진이 지속적인 발전의 연속 과정이 되도록 권유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응답하는 우리의 뜻이 의지와 지성과 정서의 일치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일생을 걸쳐 사랑은 변화하고, 성숙하며, 사랑 그 자체에 충실합니다”.

교황청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
남녀 축성생활자들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 메세지
『기뻐하십시오!』 중에서

말씀과 함께

“크핫의 자손들” 민수 7,9

공동체의 중심이며 하느님을 맨몸으로 지고 가는 사람들

글 | 양성부 총평의원 허수진 수진루시아 수녀



제임스 티소, 「요르단강을 건너는 언약궤」, 1896-1902년 작품

자리를 마련하는 일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을 기다리는 12월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 작은 ‘자리’ 하나 제대로 마련해 드리지 못했던 이천 년 전 베들레헴(루카 2, 7 참조) 같은 내 삶을 되돌아보며, 결국 자리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내어 줄 수 없었다는 것도 깨닫는다.

12월은 수도회의 중요하고도 어려운 업무 중 하나인 인사이동을 준비하는 때이다. 모든 회원들이 기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알맞은 ‘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총원과 지구장들은 늘 고심하며 마음을 모은다. 여느 때처럼 인사이동 회의가 있던 어느 날, 그날의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는 민수기 7장이었다.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위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행렬 순서 즉 ‘자리’를 정한다. 그리고 열두 지파의 수장들은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를 예물로 바쳤고 모세는 이를 받아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준다. 이것은 레위 지파들이 만남의 천막 일에 쓰기 위함이었다(민수 7,3 참조). 그렇게 레위 지파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 므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수레 넷 대와 소 여덟 마리가 주어졌다. 그런데 “크핫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민수 7,9).

맨몸으로 하느님을 지고 가는 사람들

광야 여정을 시작하며 저마다 맡은 일을 위해 분주히 짐을 꾸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런데 크핫의 자손들은 ‘빈손’이다. 아무리 ‘거룩한 일(기물)’이라고 해도 수레와 소도 없이 맨몸으로 자신의 어깨와 등에 그것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크핫의 자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그 오랜 시간을.

사실 크핫의 자손들이 지고 가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계약의 궤’였을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을 지고 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 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정을 시작하고 걸어갈 때, 정작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고 있는 ‘거룩한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어깨



프랑스 프랑켄 2세, 「언약궤를 들고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1640년경 작품

와 등을 짓누르는 무거움과 통증이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뜨거운 모래땅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과 같은 행렬의 순서이다.

1. 유다 자손 2. 이사카르 자손 3. 즈불론 자손 4. 레위(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5. 르우벤 자손 6. 시메온 자손 7. 레위(크핫인) 8. 에프라임 자손 9. 므나쎄 자손
10. 베냐민 자손 11. 단 자손 12. 아세르 자손 13. 납탈리 자손 (민수 10,14-28 참조)

행렬 순서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첫 번째 자리는 지파 중 수가 가장
많고 강했던 유다 지파가 차지한다(민수 1,27 참조). 중심부로 갈수록 약한 지파들이
자리하는데 레위 자손은 둘로 나뉘어 그중 크핫인은 전체 백성의 중심에 정확히 위
치한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제일 거룩하고 귀한 사람들! 동시에 그 공동체에서
가장 허약한 사람들-수레와 소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세와 공동체 전체는
그런 크핫인들이 ‘하느님 현존의 표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

인사이동 회의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를 정할 이들이 있다. 그들은 투병 중

이거나 정신적 영적으로 허약한 수녀들이다. 그날 민수기를 읽으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맨몸으로 짚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크핫의 자손’들인 그 수녀들이 떠올랐다. 광야의 크핫 자손들처럼 그들도 공동체 안에 생생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지만, 매일의 일상 안에서 감내해야 하는 고독과 고통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다면 그들 중 크핫의 자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오랜 세월 무거운 ‘성무(聖務)’를 짊어지고 갔기에 어깨에 굳은살이 깊이 박여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도 보이지 않는 숨은 희생과 기꺼운 봉헌으로 마음에 굳은 믿음의 흔적을 지닌 크핫의 자손들이신 수녀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둔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모든 생활 방식은 전적으로 아기에게 맞추게 된다. 왜냐하면 아기는 가장 약한 존재이며 동시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모는 아기를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신들은 주변부로 물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늘 ‘모든 변방으로 가라’(복음의 기쁨 20항)고 하신 부르심은 단순히 세상의 변두리로 나아가는 선교적 선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 삶의 중심에 둔 사랑하는 대상(하느님과 이웃, 세상)이 확고할수록 이 역동은 저절로 나를 주변부로 물러가게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통해 배운 하느님 백성의 특징이 되고, 이 정신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에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루카 복음서 6장의 행복 선언은 마태오 복음서 5장의 산상수훈과 대조하여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장소가 ‘평지’(루카 6,17)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지’(광야)라는 공간에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루카 6,20)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공동체의 중심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곳은 이미 “하느님 나라”이다. 광야 여정의 목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 “함께 걷는 것”이기에 가장 약한 이들의 보폭을 존중해야 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오늘도 더디지만 “함께 걷는 여정(시노달리타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성탄이다. 내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중심이시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8,35

글 | 청원자 박지현 글라라



청원식 후 수도회 봉쇄 구역에서 필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소서

4년 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 입회해 청원식을 하던 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해 주소서’라는 소망으로 임했던 그날, 벅찬 기쁨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청원식 후 저는 수도 공동체 밖에서 생활하며 허리 수술을 받았고, 회복 후에는 암 투병하던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하느라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을 어떤 말로 찬미드릴 수 있을까요? 단 한순간도 제게서 사랑의 눈길을 떼지 않으셨던 주님의 자비 덕분에 저는 다시 수도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의 청원식을 준비하며 오래도록 저를 기다리셨을 주님과 말씀을 통해 다시 소중한 만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창세 12,1).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왠지 모를 거부감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실 땅’에 대한 걱정이 앞서 모른 척하고 싶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 숨고만 싶어졌습니다. 긴 시간 투병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떠난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도 모르게 슬프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게다가 4년 전 청원식을 한 이후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새롭게 펼쳐질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의 이 모든 감정과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예상되는 장면들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천천히 저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그리움과 슬픔까지 그분과 함께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제가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복잡한 생각은 단순해졌고, 왠지 모를 거부감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감정은 편안해졌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지내온 4년 그리고 다시 시작된 여정

지난 4년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가족의 곁을 지키며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된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려 했던 그 시간을, 그저 함께하며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했던 그 보물과도 같은 시간을 당신께서도 함께하셨고 모두 기억하고 계시니 앞으로의 여정도 그저 당신께 맡겨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수도자로서의 자질과 공동체 정신을 배워 익히기를 청원하고 있는 필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려는 듯, 주저 없이 새로운 여정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초대를 느꼈습니다. 어떠한 강요나 부담 없이, 부드럽고 자상하게 이끄시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새롭게 길을 떠나는 아브람의 모습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꾸리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나온 저의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시고, 저보다 제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충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매 순간 저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저에게 어려움만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 당신께서 제 곁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느끼게 하고 싶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알려 주시고 싶은 주님의 그 마음을 항상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항구한 신뢰심으로 그분의 뜻을 간직하며 곰곰이 생각하셨던 성모님처럼, 상황 자체보다 그 너머에 담긴 의미를 찾으며 나아가는 앞으로의 여정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8월, 다시 청원식을 하며 저의 소망 또한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잊지 않게 해 주소서.’

제가 사랑하기 전부터 저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그분의 크신 사랑에 머물며 기쁘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성탄 구유에 마구간 동물들은 꼭 있어야 하나요?

가톨릭교회는 성탄을 준비하며 세 가지 의미 있는 장식을 합니다. 대림환과 성탄 나무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입니다.

우선 사철나무 가지를 둥글게 말아 만든 대림환 위에 네 개의 초를 올려두고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이때 환형(環形)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사철나무의 늘 푸른 잎과 촛불은 추운 겨울을 건디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탄 나무로 상록수를 쓰는 것 역시 늘 푸른 나무가 건강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거는 장식물은 취향대로 준비해도 되지만 큰 별과 색 구슬은 꼭 준비합니다. 큰 별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을 상징하고, 색 구슬은 창세기에 나오는 금단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주로 성당 마당이나 성당 안 제대 앞에 설치하는 성탄 구유는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성모 마리아, 요셉 성인 그리고 세 명의 동방박사들과 목동, 마구간에 함께 살 법한 여러 동물들로 장식합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요셉 성인과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소와 나귀입니다.** 소는 유대인, 나귀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구유는 성가정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즉 세상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도서 : 박종인, 〈교회상식 속풀이〉, 바오로딸(2017)

돌본다는 것의 의미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글 | 정연숙 글라라(성모자매회 회원)



페트라 펠리니 지음 | 북파머스 펴냄

일주일에 세 번,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것

자동차에 뛰어들어 열여덟 번째 생일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과 ‘합리적으로 작별’하기로 마음먹은 열다섯 살 소녀 린다. 하지만 린다에게는 이 야심 찬 계획을 망치는 골칫거리(?) 존재가 돌썩이나 있다. 이웃집 치매 노인 후베르트와 6년 전부터 등 곳곳에 함께 데리고 다닌 소년 케빈!

린다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후베르트를 돌본다. 일주일에 세 번이나 되긴 해도 24시간 간병을 맡고 있는 정 많은 폴란드인 에바가 잠시 숨을 고르도록 여유를 주는 짧은 시간일 뿐이고, 돌본다고 해봐야 말 그대로 지켜보는 수준이다. 처음엔 다리에 매달린 수하물 같아 성가시기만 했던 케빈도 아홉 살 무렵부터는 나란히 걸어도 될 만큼 자랐다. 더욱이 이제는 기후 위기가 초래할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는 애늬은이가 되어 제법 대화가 통한다. 봉사활동인지 아르바이트인지 모를 일을 린다도 은근히 즐기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방해하는 이 둘에 대해 시종일관 심드렁하고, 귀찮은 짐짝 취급을 하기 일쑤인 린다.

소설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의 작가 페트라 펠리니는 과거 간호사로 일한 경험

을 토대로 약한 존재에 대한 돌봄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 속 돌봄은 상당히 소극적이며, 연대 역시 끈끈함과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가정 폭력의 상처를 안고, 엄마와 단둘이 사는 린다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버팀목 역시 이들이라는 것 또한 금세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따뜻한 연민이 또 있으랴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해 매일 같은 자리에서 외출한 아내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인 여든여섯 살의 후베르트. 치매 환자일수록 기억 세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후베르트의 딸과 달리 린다는 굳이 그의 사라져 가는 기억을 되살리려 하지 않는다.

“살면서 아내의 죽음을 한 번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세상에. 매일 알아야 할 필요는 정말 없어요!”

매일 아내의 상실을 재경험하는 것보다는 돌아오지 않을 아내를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린다. 이보다 더 따뜻한 연민이 또 있으랴!

40년 이상 인근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후베르트. 그리고 그런 그의 유일한 자부심은 자신이 일하는 동안 구하지 못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서사가 소설 속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온다. 처음엔 공치사할 것조차 사라져 가는 노년의 남루함쯤으로 여겨지지만 책의 마지막을 읽을 때쯤이면 알게 된다. 한때 수영장 안전요원이었던 후베르트는 치매를 앓다가 죽어가던 생의 마지막까지 한 아이를 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린다였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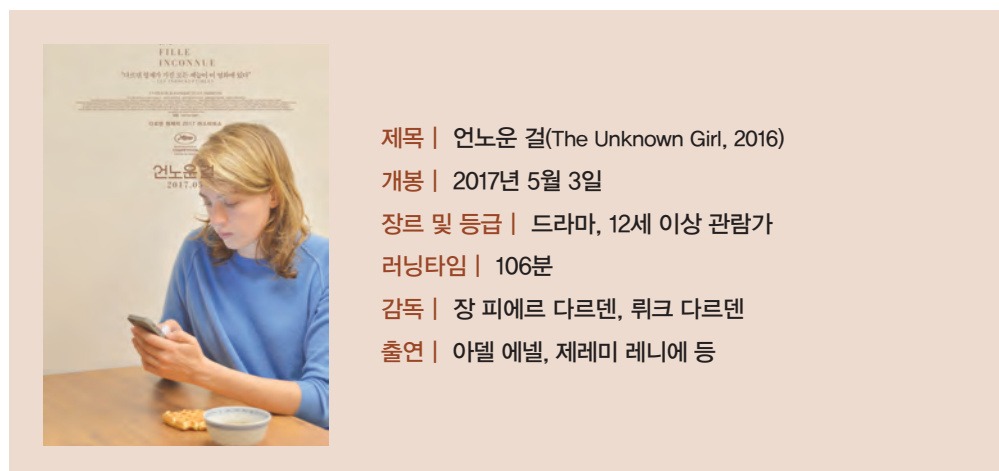
함께 공감 나누기 해봅시다

- 돌봄은 일방향의 베풀이 아니라 양방향임을 느끼는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누군가 또한 나를 돌보아 왔음을 느끼게 된 순간 혹은 그 반대의 순간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문을 열면, 마음도 열립니다

영화 <언노운 걸>

글 | 이대현 요나(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제목 | 언노운 걸(The Unknown Girl, 2016)

개봉 | 2017년 5월 3일

장르 및 등급 | 드라마, 12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 106분

감독 | 장 피에르 다르덴, 뤼크 다르덴

출연 | 아델 에넬, 제레미 레니에 등

어쩌면 딱 한번뿐이었을

나는 다를까? 낯선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린다면? 그것도 근무 시간 이후이거나 한밤중에?

아마 쉽게 문을 열지는 못할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문을 열까?

벨기에의 한 빈민가, 간호사도 없는 작은 클리닉의 임시 채용 의사 제니(아델 에넬 분)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한 흑인 소녀가 다급히 인터폰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외면했다.

평소 그녀는 아픈 사람들을 성심껏 치료해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러도 불평 없이 집으로 달려간다. 불법체류자라고 차별하는 법도 없다.

그날 밤 딱 한번이었다. 3개월 예정이었던 클리닉 임시 근무는 다음 날로 끝날 예정이었고, 어느 때보다 늦게까지 환자가 많았다. 순간적인 오만과 이기심이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버릴 일. 그러나 다음날 아침, 흑인 소녀는 신원미상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냉정하게 말해 그녀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른다. 진료 시간 이후였고, 응급환자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치료를 하지 않아 죽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경찰도 그냥 잊으라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하느님은 그녀에게 단 한번의 외면과 무심함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며, “너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느냐?”라고 물었다. 그녀는 종합병원 일자리까지 포기하고 누군지도,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은 지도 모르는 소녀의 행적을 찾아 나선다.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오니

제니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영화 <언노운 걸(The Unknown Girl)>이 보여 주려는 것은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가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거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성찰이다. 그녀 역시 큰 사명감이나 신념으로 소녀의 죽음에 매달린 것은 아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 갔을 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소녀의 존재를,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 성매매를 강요하다가 그 소녀를 실족사하게 만든 남자와의 대화가 답을 준다. 경찰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려는 제니의 요구에 남자는 왜 그래야 하나며, 죽었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냐며 거부한다. 그런 그에게 그녀는 죽은 소녀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며, 끝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아픔과 불행 앞에 모두가 공범일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몰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모르는 죄까지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을 열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주님 사랑의 실천이고, 주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모든 이에게 모든 것

1995년 한국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님들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을 따라 지구 반대편
이 열악한 땅에 오신 수녀님들을 보며,
저는 교회가 결코 가난한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제게
사목의 목적을 일깨워 주었고,
사제가 되면 저 또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페루 해의 선교 30주년 기념 미사 중
페루 리마 초시가 교구장 호르헤 주교 강론에서

기념 미사 후 열린 축하식에서 호르헤 주교(왼쪽),
오스카르 신부와 함께
칸또 그란데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공소

2025. 9. 13.



선교 화보-페루

페루 해외 선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성모자매회 첫 서약식

기념 미사 중 거행된 성모자매회 첫 서약식 서약서에 사인하는 성모자매회 니에베스 플로렌시아 자매



▲ 성모패 축복

첫 서약 자매들에게 수여할 성모패를 축복하는 크리스토팔 메히야 주교



▲ 성모패 수여 첫 서약 자매들에게 성모패를 수여하는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



페루 선교 30주년 기념 미사

출루까나스 교장 크리스토팔 메히야 주교(사진중앙) 주례로, (왼쪽부터)에드가 신부, 앙헬 가브리엘 신부, 존 데니스 신부(오른쪽 끝)가 공동 집전했다.
비야엘 살바도르 기적의 주님 공소 2025. 9. 21.



▲ 성모자매회 첫 서약 자매들과 수녀들

성모자매회 첫 서약 자매자들과 (중앙 왼쪽부터)선교총평의원 김동선 임마꼴라다 수녀,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 박은경 은경아네스 수녀, 이순옥 글라리사 수녀, 김향련 마리후고 수녀,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송선영 리사 수녀,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 축하 노래하는 수녀들

기념 미사 후 공소 옆 산마르틴 급식소에서 열린 축하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우리 수도회 수녀들



축하식에서

- ▲ (왼쪽부터)시릴로 신부, 에드가 신부, 모린 수녀, 율리아노 신부, 박은경아네스 수녀, 빠띠 수녀, 홀리오 형제, (뒤쪽)루초 형제
- ▼ (왼쪽부터)선교총평의원 김 임마꼴라다 수녀, 크리스토팔 메히야 주교, 나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 앙헬 가브리엘 신부



페루 선교 30주년, 은총의 발자취

글 | 이순옥 글라리사 수녀(비야 엘 살바도르 본원)



1995년 선교 첫 해 칸또 그란데
후안빠블로 세군도 수녀원 모습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지역과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진리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설립 정신에 따라 복음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리고 수도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1995년, “인류 가족을 위해 일어나 가자”라는 총회의 주제 아래 처음으로 두 명의 회원을 페루에 파견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페루 선교는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의 답사로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꾸스꼬에서의 심한 고산병, 낮은 기후와 음식, 테러의 위험 등 낯설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땀노와 따끈나 교구의 요청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메리놀회 손경수 신부의 안내와 페루 교회 지도자들의 초대는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 주었고, 고심 끝에 리마 변두리 지역인 칸또 그란데(Juan Pablo II 지역)를 첫 선교지로 결정했다.

1995년 1월 6일, 본원 성당에서 열린 첫 해외 선교 파견 미사. 주한 페루 대사 부부와 메리놀회 수녀들이 함께 축복해 주는 가운데, 우리는 두 명의 선교사(이완자 마리안나 수녀, 최정희 루치아노 수녀)를 주님께 봉헌하며 페루 선교의 문을 열었다(『페루 선교 1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 2005년 참조).



1996. 5. 4. 총원 정기 본원 방문
왼쪽부터 최정희 루치아노 수녀,
이완자 마리안나 수녀,
김주영 말첼리나 수녀, 우소영 베다 수녀



2000. 5. 13. 후안빠블로 세군도 마을 진료소 결핵환자 프로그램 중 어머니날 잔치를 진행하는 필자

첫 10년의 은총

처음 정착한 깐또 그란데는 사막의 모래와 먼지가 휘날리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에우칼립소에 회칠을 해서 지은 집은 예수성심전교회 수녀들이 지내다 떠난 빈집으로, 바람이 송송 들어오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렸지만 점차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다. 물을 길어다 주고, 신문지로 벽을 발라 주며, 손을 꼭 잡아 주던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이웃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이후 모든 시간을 버티게 한 은총의 시작이었다.

10년 동안 작은 공소는 신앙 공동체로 자라났고,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공소 사도직 전반적인 책임 운영, 동네 진료소에서의 결핵 프로그램 진행,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의 나눔을 하는 동안 삶의 스승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있었다.



2012. 6. 1. 깐가리 공소 분원 요셉동 축복식

뒷줄 왼쪽부터 박은경 은경아네스 수녀, 이양순 힐립보 수녀, 김향련 마리후고 수녀, 살바도르 삐네로 갈시아 대주교(아아꾸초 대교구), 박소현 요한마들렌 수녀, 최종숙 아우구스타 수녀와 아틀란타 단기선교팀, 최준태 안드레아 팀장(중앙)

시련과 도전 속의 새로운 길

1997년, 유치원 확장 문제로 수녀원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공동체 안에서도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과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기도과 성찰 끝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 선포”라는 선교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고, 그 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열렸다. 리마 변두리 빈민 사목과 안데스산맥 오지 선교였다.

선교지를 멀리서 찾지 말고 여기 와서 같이 일하자는 당시 크리스토팔 메히야 신부의 제안에 우리는 1999년 5월 12일 신부님을 방문하여 본당, 공소, 수녀원 등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어설피고 썰렁한 본당 주변과 열악한 사목 현실을 접하고 ‘이 곳이 우리가 찾던 곳’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대희년인 2000년 3월 24일 우리는 비야 엘 살바도르 ‘크리스도 엘 살바도르(구세주 그리스도)’ 본당에 최정희 루치아노 수녀, 최종숙 아우구스타 수녀, 박정하 마리로 마나 수녀를 파견하여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2005년 3월 2일 페루 선교의 모태이며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며 정들었던 칸또 그란데에서 아야꾸초 대교구 완파 칸가리로 최종숙 아우구스타 수녀, 오현주 벨베뚜아 수녀를 파견했다. 이곳은 자연과 함께 순박한 원주민 사이에서 선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페루 선교 20년을 회고』, 2015 참조).

30년의 결실과 새로운 시작

은총의 30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다시 그 처음을 기억한다. 2025년 희년에 맞이한 페루 선교 30년은 하느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1995년 두 수녀가 낯선 땅을 향해 떠나던 그날의 설렘과 떨림,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짐, 그 초심이 있었기에 지난 30년이 가능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려 한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손을 꼭 잡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 떠났던 그 마음으로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나아간다.

그 길에서 변함없는 동반자인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은, 선교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2012. 6. 1. 공사 중인 칸가리 수녀원을 방문한 아야꾸초 대교구 가비노 보좌주교와 평신도들
왼쪽부터 오현주 벨베뚜아 수녀, 가비노 보좌주교, 박은경 은경아네스 수녀, 앞줄 최종숙 아우구스타 수녀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리오”

로마 11,34(200주년 신약성서)



2023. 4. 22. 깐가리 수녀원 요셉
동 경당에서 있는 성모자매회 페루
지부 첫 서약 준비 피정을 함께 한
성모자매회원들과 필자

글 |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리마 선교센터)

2020년 초 한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페루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이곳은 큰 변화 없는 일상을 지냈다. 모든 면에서 조금 느린 이곳에는 바이러스의 공포도 느리게 찾아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2021년 하반기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전까지는 세 명의 수녀가 페루 깐가리에서 시골 전원의 일상을 지내며, 부지런히 선교를 하다가 두 수녀가 먼저 귀국하고 혼자 깐가리에 남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하고 떠날 채비가 되어 있는 나그네와 같았기에 언제든지 또 다른 수녀가 파견되어 오리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페루도 공항이 폐쇄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 비상 상황을 야기했음을 일깨워 주었다. 공적 모임이나 주 1회 있는 공소 미사에 마스크 없이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정착시키는 데에만 거의 일 년이 걸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밭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이곳 깐가리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 않았다. 농사가 생업인 이곳 사람들은 가족별 농지 구분이 분명해 모든 일상은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지구촌 뉴스에나 나오는 전염병의 심각성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나 역시 수녀원 밖을 거의 나가지 않으며 수녀원 경내 넓은 정원에서 자연과 벗하며 지냈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느님께서는 혼자 있던 내가 평소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있던 바를 실행하도록 해주셨다. 그것은 네 명의 자매들을 성모자매회로 초대하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먼 나라에 파견되어 홀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녀가 가여웠던지 평소 수녀들과 가까이 지내던 네 명의 페루 자매들이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일주일에 네 번 저녁 7시면 수녀원으로 찾아와 잠동무가 되어 주었다. 다음날 새벽이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챙기며 자의 반 타의 반 수도 생활 체험 일상을 3개월씩 두 번에 걸쳐 실행한 이들은 수녀와 함께하는 기도 생활, 특히 성무일도를 통해 하느님 말씀에 매혹되었다. 수녀원과 자매들의 집은 도보 40분 거리라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오가는 게 녹록지 않았을 테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성모님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자매들은 그 시간이 가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위로받는 시간이었고, 때론 다른 사람에게서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께 투정 부리며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으며, 새벽과 밤의 고요함 속에 오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리오”(로마 11,34. 200주년 신약성서). 이렇게 칸가리에 성모자매회 페루지부가 탄생되었고, 지금은 리마 수도권까지 총 26명의 회원이 있다.

“복되어라, 자기 하느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시편 146,5. 공동번역성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회헌 1조) 우리의 영성과 사명이 페루 땅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보니 분명 주님의 뜻이리라. 수도 성소가 귀한 시대에 삶의 자리에서 수도회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재속회원들의 역할은 교회가 외치고 있는 시노드 정신에 발맞춰 가는 성령의 비추심이다.

2023. 5. 7. 칸가리 공소에서 열린 성모자매회 페루지부의 첫 번째 첫 서약식 미사 후
왼쪽부터 정윤희 뽀리나 수녀, 김동선 임마꼴라따 수녀,
뒷줄 중앙부터 필자,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 이순옥 글라리사 수녀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루카 24,32

글 |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리마 선교센터)



1995년, 두 수녀님의 첫걸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8명의 수녀님들이 페루 선교에 사랑을 심어 오셨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실 만큼, 페루는 하느님의 숨결이 깊이 깃든 신비로운 땅이다.

나 역시 2007년, 유기서원자임에도 불구하고 페루에 파견되는 은총을 받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페루 청년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그 따뜻한 만남을 마음에 품은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의 소중한 기억은 내 안에 새로운 꿈을 심어 주었다. 언젠가 다시 페루에 돌아와, 이 땅에 필요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것이다.

다시 뿌려진 복음화의 씨앗이 쥐불처럼 번져나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페루 재복음화를 위한 작은 씨앗으로, 우리 수도회의 가톨릭성서모임 형식의 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하는 일이었다. 처음엔 막연했지만, 팬데믹 시기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이 작은 그룹은 조금씩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리마뿐만 아니라 산악 지역과 아마존 지역까지 그룹이 형성되었고, 그 확산은 국경을 넘어 과테말라와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져 창세기 그룹과 탈출기 그룹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총 12회의 창세기, 탈출기 연수를 통해 연수생 159명과 말씀의 봉사자 16명이 탄생했다.



2025. 1. 17~19. 라틴아메리카 11차
과테말라 창세기 연수 중 “하느님
의 모상”에 대해 강의하는 필자

이제는 각 지역별, 국가별 봉사자들이 양성되어 비대면 회의를 통해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점차 경제 발전은 이루어 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깊어지는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가톨릭 신자는 감소해 전체 인구의 약 60%로 집계되고,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신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가적 범죄 조직과의 연결로 인해 도둑과 살인 사건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에나 어려움은 존재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선교의 비전은 더욱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일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명이다. 동시에, 현지인 봉사자와 본방인 사제 및 수도자를 양성하는 일 역시 선교의 중요한 방향이다.

초창기 우리 수도회 가톨릭성서모임에서는 이를 “쥐불놀이 영성”이라는 비유로 표현했다. 쥐불놀이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 불씨가 지역사회와 민족, 세대를 넘어 활활 타오르며 생명과 회복을 가져오는 선교적 비전과 닮아 있다(야고 3,5 참조). 오늘날의 힘겨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신비가 육화 되어 활활 타오르는 복음 선포가 이루어져야 함을 느낀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며, 많은 이들의 많은 기도를 절실히 바란다.



2025. 5. 2. ISET JUAN 23 신학교 학생회
임원 지도자 워크숍에 참가한 필자



치유와 나눔의 길

글 | 임진환 제임스 부제



2025. 8. 3. 비야 엘 살바도르 산마르틴 급식소에서 LA 오렌지교구
알바인 평화의 모후 성당 의료 선교팀(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필자)

지난 7월 말, UCLA 치과대학의 방학을 이용해 페루 리마 남쪽 비야 엘 살바도르에 의료 봉사를 다녀왔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페루 선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의 봉사는 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의료 선교에 발을 들인지 50년이 넘은 나에게 다시금 초심을 일깨워주는 은총의 시간이 된 것이다.

페루는 아름다운 자연과 깊은 역사를 간직한 나라지만,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 이번 봉사에는 내과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학생, 자원봉사자 등 20명이 함께했다. 의료 봉사를 하려면 숙소와 식사, 진료 공간 마련까지 수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현지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수녀님들과 신자들의 세심한 도움으로 가능했다. 의료 장비나 약품보다 함께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얼마 깊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가

의료 봉사의 핵심은 몇 명을 진료했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

한 도움을 전했는가에 있다. 때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지만, 환자에게 이유와 대안을 설명하며 함께 길을 찾아가는 순간, 의료 선교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봉사는 늘 양면성을 지닌다. 무턱대고 ‘베푸는’ 봉사가 아니라, 현지 의료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정한 결실을 맺는다. 이번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녀원에 머물며 신앙의 삶을 함께 나눈 젊은 봉사자들은 단순히 의료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선교의 본질임을 배웠을 것이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의료 선교의 가장 깊은 뿌리다. 자비로 경비를 감당하며 먼 길을 달려와 진료하는 것은 곧 복음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 드러내는 일이다. 그 모습은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봉사자들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눈을 열어준다.

30년 동안 이 땅에서 묵묵히 선교의 길을 걸어온 수녀님들과 신자들, 그리고 뒤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행해 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의 의료 선교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현지 의료진과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돌봄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또한 젊은 세대가 이 사명을 이어받아, 더 넓은 세상에 복음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페루 선교 30주년, 그것은 지난 세월을 기념하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다가올 30년, 그리고 그 이후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자 초대이다. 지난 50여 년의 경험은 단순한 발자취가 아니라, 앞으로도 길을 밝혀 줄 등불이 될 것이다.



2025. 7. 31. 비야 엘 살바도르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 2층 교실에서 치과 치료를 하고 있다.



간가리 선교 20주년을 맞으며



2025. 9. 4. 요셉동 공동실에서 성모자매회 월봉헌일 모임 후
(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2005년 3월경 최종숙 아우구스타 수녀님과 오현주 벨베크아 수녀님이 간가리에 오셨다. 얼마 후 아야꾸초 대교구 주교님이 오셔서 미사 중에 두 분을 공식적으로 우리 마을에 파견하셨다. 이렇게 두 분은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설립된 수녀원의 수녀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다. 주교님은 스페인어 성경과 케추아어 성경을 각 한 권씩 주시며, “가족과 조국을 떠나 먼 나라에서 하느님을 섬기고자 오신 분들이니, 여러분이 도와드리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과 영혼이 깊이 울렸다. 그리고 수녀님들을 돕기로

글 | 엘비라 티노코(성모자매회 회원)

결심했다.

우리는 주일마다 미사를 드리고, 화요일에는 묵주기도를 함께 바쳤다. 수녀님들과 봉사도 다니게 되었다. 신자가 점점 늘면서 치우아, 파께, 와이수이, 실꼬 등 이웃 마을까지 봉사하러 다니게 되었다. 주로 통역을 도왔는데, 수녀님들과 동행하지 못할 때면 케추아어만 쓰는 어르신들과 어떻게 대화하실지 걱정이 앞섰다.

수녀님들은 여성회관을 열어 뜨개질, 바느질, 요리, 옷 판매 등을 가르쳐 주셨다. 그 활동으로 수익을 내 어르신과 병자들을 돕고, 노인의 날 행사도 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수녀님들이 오셨다. 박은경 은경아녜스 수녀님, 김향련 마리후꼬 수녀님, 박소현 요한마들

렌 수녀님, 이순옥 글라리사 수녀님, 이수연 로메로 수녀님, 곽호임 마리오셀 수녀님, 그리고 정윤희 뽀리나 수녀님까지... 일부 수녀님들은 귀국하시기도 했지만, 팬데믹 시기에도 신영애 스페란자 수녀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팬데믹 시기에는 모든 모임과 만남이 금지되어 아주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더 가까워졌다. 함께 기도하며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지지했고, 전례와 봉헌생활, 평신도의 삶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수녀님들은 공소에서 세례성사, 첫 영성체식, 견진성사, 혼인성사 교리를 하시고, 사제를 도와 병자성사에도 함께 하셨으며 학교 종교 수업도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수녀님께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재속회원인 성모자매회에 대해 말씀하시며, 봉헌생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성모자매회 회원으로서 교회와 사제, 그리고 수도자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했다. 육체적·영적 필요를 위해 가정과 성당,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큰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으로,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

성모자매회 회원으로서 1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김 마리후꼬 수녀님과 박 은경아녜스 수녀님을 도와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Historia de la misión en Cangari

por Elvira Tinoco

En el año 2005 llegaron a Cangari dos madres en busca de un terreno o espacio donde pudieran quedarse. El pueblo, con mucho gusto, les ofreció un lugar. Así se quedaron con nosotras la madre Augusta Choi y la madre Perpetua Ho, fundadoras en nuestro pueblo.

Poco después vino el Monseñor de Ayacucho, Gavino Miranda, para entregarlas oficialmente al pueblo con una celebración de la Eucaristía. En esa ocasión también nos entregó dos Biblias, y nos dijo que debíamos apoyarlas, porque ellas habían venido desde muy lejos, dejando su país y su familia, para servir a Dios.

Escuchar esas palabras me conmovió profundamente el corazón y el alma. Pensé en lo difícil que debía ser para ellas, sobre todo por el idioma. Desde entonces decidí acompañarlas. Celebrábamos la Eucaristía los domingos y

rezábamos el Rosario los martes. Eso fue después del tiempo del terrorismo. Antes yo pertenecía al grupo del Camino Neocatecumenal e iba a Huanta dos veces por semana para recibir charlas y participar en la Eucaristía.

Como las madres también hacían lo mismo, me quedaba con ellas. Al principio éramos pocos hermanos, pero con el tiempo fuimos creciendo. Luego empezamos a visitar pueblos vecinos como Chiua, Paquecc, Huaysuy y Sillco. Yo las acompañaba para ayudarles con la traducción del quechua al español. A veces las dejaba solas, pero me sentía mal, preocupada por cómo podrían comunicarse con los ancianos que solo hablaban quechua.

Más adelante abrieron un taller donde nos enseñaban a tejer, coser, cocinar y vender ropa. Con lo recaudado ayudábamos a los ancianos, a los enfermos y celebrábamos el Día del Adulto Mayor.

Después llegaron más hermanas: la madre Inés, la madre Mari-Hucco, la madre Juan Madlen, la madre Clarisa, la madre Suyoun, la madre María José y la madre Paulina. Algunas tuvieron que regresar por motivos de salud, pero luego vino la madre Esperanza durante el tiempo del COVID-19.

Durante un tiempo ella se quedó sola, ya que no podíamos vernos por las restricciones. Fue

una época difícil tanto para nosotras como para la madre. En ese tiempo aprendimos a acompañarla en su soledad, a orar juntas y a profundizar en la liturgia y en la vida consagrada y laica.

Un día la madre nos habló de la Asociación de los Segundos Miembro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y nos enseñó que la vida consagrada es diferente. Aceptamos formar parte como segundos miembros para ayudar a la Iglesia, a los sacerdotes y especialmente a las hermanas, tanto en sus necesidades corporales como espirituales, mediante la oración en el hogar, en la Iglesia o en comunidad.

También las madres enseñan en los colegios y preparan para los sacramentos: Bautismo, Primera Comunión, Confirmación y Matrimonio. Además, acompañan al sacerdote en la atención a los enfermos y en la Unción.

Yo tengo mucha responsabilidad, porque todo lo que hacemos es para el bien espiritual y familiar, en mi hogar y con toda mi fe, hasta que el Señor me dé la vida. Doy gracias por haber sido escogida para el servicio del Señor y de Nuestra Madre del Perpetuo Socorro, junto con las madres Mari Hucco e Inés, que después de diez años volvieron para compartir con nosotros nuestras oraciones diarias y ayudarnos a no caer en la tentación.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글 | 글로리아 마리아 빨라시오 세구라(가톨릭성서모임 봉사자)

가톨릭성서모임에서의 내 여정은 5년 전, 최종숙 아우구스타 수녀님의 창세기 그룹공부에 초대되면서 시작되었다. 단순한 성경 공부로 생각했지만 전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다.

팬데믹 시기라 비대면 모임이었지만, 각 모임은 영적으로 깊고 배움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모든 만남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창이 되었고,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었다. 첫 번째 연수를 체험한 후, 그 빛을 계속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의 울림을 느꼈고, 봉사자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말씀의 봉사자는 따뜻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청년들을 인도하는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나는 내가 속한 리마 비야 엘 살바도르뿐 아

니라 페루 해안 지역 트루히요, 심지어 과테말라 그룹까지도 동행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룹공부나 연수를 통해 청년들이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보았고, 이는 나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는 또 하나의 체험이 되었다.

봉사자로서 가장 감동받는 순간은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것을 볼 때이다. 의문을 품고, 개인적인 답을 찾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영혼에 직접 말을 걸며, 일상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한다. 어떤 이들은 처음으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어 새로운 그룹과 함께하기 위해 봉사자로서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페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여기지만, 그들 모두가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여러 활동에 몰입하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접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기에 말씀의 봉사는 매우 중요한 소명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해 주고, 그룹원은 물론 봉사자들의 신앙도 풍요롭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 체험은 가톨릭교회의 보편성(연대성)을 깊이 느끼게 해 준다. 시간과 공간이 다른 한국과 페루의 청년이 같은 성경 구절을 펼쳐 읽고, 배우며,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각자의 언어와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며,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 꿈을 그려 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 준다. 서로 다른 대륙에 살고 있지만, 같은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믿음과 사랑은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 우리를 하나로 이어 주기 때문이다.

La Palabra transforma vidas

por Gloria Maria Palacios Segura

Mi camino en el Movimiento Bíblico de Vida Católica comenzó hace cinco años, con una invitación de la hermana Augusta a unirme al estudio del Génesis. Lo que parecía un simple estudio bíblico se convirtió en el inicio de toda una aventura. Nos reuníamos virtualmente, compartiendo reflexiones por Zoom. El camino podía parecer sencillo, pero era profundamente espiritual, lleno de mucho aprendizaje. Cada encuentro era una ventana que se abría a un mundo de fe y de conocer más la palabra de Dios. Después de vivir mi primer Yonsu, comprendí que debía seguir compartiendo esa Luz, pero esta vez como Servidora.

Mi servicio como Servidora fue a través de Hermana Manuela que con corazón valiente y cálido acompaña a los jóvenes del CBLM. Permitiéndome acompañar a grupos no solo en mi localidad, sino también fuera de mi zona como el grupo de Trujillo e incluso en otros

países como en Guatemala. Lo que más me inspira es ver cómo este movimiento toca el corazón de las personas a través de las Sagradas Escrituras.

창세기 1차 연수 수료증을
받는 필자





12차 창세기 연수 봉사자들과 함께(왼쪽 첫 번째가 필자)

AIR MAIL

Muchos llegan buscando respuestas o con dudas y, encuentran una comunidad que profundiza en la Palabra y que le habla directamente al alma y que se hace Viva con acciones. Algunos descubren, por primera vez, el inmenso amor de Dios. Otros encuentran la fuerza para seguir adelante y deciden perseverar como servidores para acompañar a nuevos grupos.

Aunque en Perú, muchos se consideran católicos, no todos leen la Biblia. Los jóvenes, en particular, se pierden en las actividades, pero pocas veces profundizan en las Sagradas Escrituras. Es por eso que este servicio para mí es importante, porque te acerca a la Palabra

de Dios y nutre la fe de los jóvenes tanto participantes como servidores. También me muestra la universalidad de la Iglesia Católica; si un joven en Corea abre la Escritura, y otro en Perú hace lo mismo, ambos si están atentos escucharán que Dios les habla y acompaña en sus luchas, sus sueños y sus decisiones. Ambos descubrirán que no están solos. Porque la fe, como el amor, no conoce fronteras.

Tengo el corazón contento en el servicio incluso cuando las jornadas o la organización pueda parecer agotador, la semilla de la palabra de Dios dará fruto y me alegra el corazón ver como florece y como da fruto.

선교지 소식 베트남

한국어 수업 2025. 8. 22.



- ▲ 호치민 분원 2층 거실에서 김재숙 시릴로 수녀와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 카 현

성소자 가정방문 2025. 8. 28.



- ▲ 베트남 중부지방 하띤 교구 민뚜 본당 출신 대학생 성소자 짱의 가정을 방문했다.

수도회 홍보 하띤 교구 민뚜 본당 2025. 8. 28.



- ◀ 수도회 홍보 후 어린이들과 함께 김 마리안 수녀(왼쪽)와 김 시릴로 수녀(오른쪽)가 사진을 찍었다.

시각장애시설 방문 시각장애시설 (Trung Tam Khiem Thi Nhat Hong) 2025. 9. 19.

- ▶ 제140차 재교육 수녀 5명과 김 마리안 수녀가 함께 방문했다.



선물 나눔 지엠 두 성당 2025. 7. 26.

- ▶ 지엠 두 성당 1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새 학기 학용품과 인형을 선물했다.
(맨 윗줄 제대 중앙 왼쪽부터) 김희자 마리릿
다 수녀, 백미현 글라라 수녀



성소자 모임 2025. 9. 14.



- ◀ 초·중·고 성소자 19명에게 우리 수도회를 소개하고,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 색칠하기와
한국 음식 문화 체험으로 김밥 만들기를 했다.



한가위 행사 2025. 10. 2.



- ▲ 강강술래를 하며 한국의 한가위 문화를 체험하고, 풍요와 복을 빌어 주는 베트남 용춤 단체를
초대하여 공연을 관람하며 양국의 문화를 나누었다.

선교지 소식 필리핀

성도미니코수도회 미국인 수련자 내방 2025. 7. 11.

- ▶ 따하난 니 마리아(Tahanan ni Maria,
한국명 마리아의 집)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한 성도미니코수도회 미국인 수련자들
(왼쪽부터)최지영 요세핀 수녀, 김민정 루체 수녀



예수수도회 미션지 방문 칼로우칸 교구 공소 2025. 7. 23.



- ◀ 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왼쪽 끝)와
우리 수도회 제90회 종신서원 예정반
수녀들, 예수수도회 수녀들과 교우들



해외 선교 체험 마무리 공동체 미사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 2025. 9. 1.



- ▲ 제90회 종신서원 예정반 수녀들의 필리핀 해외 선교 체험의
마무리 공동체 미사를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윤홍민 안드레아 신부가 집전했다.

의정부교구 천마성당 해외 봉사팀 방문 린창고 급식소 2025. 9. 2.



◀ 미용봉사와 핫도그 급식을
준비했다. 제90회 종신서원 예정반
수녀들과 김 가브리엘라 수녀,
급식소 자매들도 함께했다.

바이블 셰어링 요셉동 2층 공부방 2025. 9. 14.



▲ 김 루체 수녀와 함께한
마르코 복음 바이블 셰어링

유치원 1분기 시상식 따하난 니 마리아 유치원 2025. 9. 16.



▲ 상장을 받아 든 어린이들이 활짝 웃고 있다.

성 로렌조와 동료 순교자들 축일 미사

성로렌조 성당 사제관 입구 2025. 9. 27.



▲ (왼쪽부터) 김 루체 수녀, 김 가브리엘라 수녀,
미사를 집전한 갈로오간 교구장 추기경 암보,
정 유닛 수녀, 최 요세핀 수녀

급식 준비 린창고 급식소 2025. 10. 2.



▲ 준비된 급식을 점검하고 식사 전
기도를 하는 정 유닛 수녀

• 선교지 소식 카자흐스탄 •



한국어 수업 마리아의 집 공부방 2025. 9. 26.

◀ 한성숙 살레시아 수녀와
한국어 중급과정을 공부하는
(왼쪽부터)고려인 강 올리아,
윤 니나

영어 수업 마리아의 집 공부방 2025. 9. 23.

▶ 영어 수업을 하는 자니아(초등 2학년)가
함께 온 동생들과 사진을 찍었다.



마리아의 집 공부방 지붕 공사 2025. 9. 2.

◀ 본당 주임 알란 신부가 제안하여
독일 가톨릭교회 해외 원조 단체 레노바비스의
후원을 받아 수리를 마치고 깔끔해진 모습



안토니나 자매 시골 농장 축복식 2025. 7. 5.



- ◀ 주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드리며 시골 농장 축복식에 강정숙 파우스티나 수녀(왼쪽)와 오은영 은영데레사 수녀(오른쪽)를 초대한 안토니나 자매와 싸샤 형제

딸티코르간 성당 청년 M.T 코나예프 피정의 집 2025. 7. 9.



- ▲ M.T 중 친교 프로그램에 함께 한 딸티코르간 성당 청년들



조부모와 노인의 날 코나예프 성당 2025. 7. 29.

- ▲ 성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 현대병원 의료진 봉사

딸티코르간 병원 2025. 7. 20~25.



- ▲ 협약을 맺은 남양주 현대병원 약사, 간호사, 대학생 봉사자들이 무료 진료와 통역, 복용법을 기재하는 등의 의료 봉사를 했다.

해돋이 공부방

해돋이 마을의 빛, 가난한 이들의 작은 등불

탐방·정리 | 성모자매회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해돋이 마을의 가파른 골목길을 끝까지 오르면 소박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성모의 집 해돋이 공부방.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지만 42년째 매일 아침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나자렛 사도직을 통해 지역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 분 수녀님들이 있는 곳이다.

언덕 끝에서 만나는
해돋이 공부방과 수녀님들
(왼쪽부터 김 빅토리아 수녀,
이 비비안나 수녀, 곽 잔다크 수녀)



작은 식탁에서 공부방으로

바닷바람이 거세게 부는 청학동 산 자락, 낡고 허름한 집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는 해돋이 마을 언덕 끝에 해돋이 공부방이 자리 잡고 있다. 1983년 10월 4일,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살고자 하는 나자렛 정신으로 시작된 이 공간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 밥을 내어주는 작은 식탁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아이들 대부분이 가정 내 돌봄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가톨릭 신자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부산교구 첫 번째 공부방의 출발이었다.

“이 동네에 성모의집 해돋이 공부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나누었거든요.”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재숙 빅토리아 수녀의 말이다.

아이들은 떠나도 꺼지지 않는 불빛

42년이 흐른 지금, 해돋이 마을엔 더 이상 아이들이 살지 않는다. 대신 영도구 내 여기저기에서 알음알음 이곳을 찾는 초등학생에서부터 중학 1학년생까지 스무 명 남짓한 아이들이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모래놀이방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35분까지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등 교과목과 모래놀이 치료 등 인성교육을 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가끔 특별 프로그램으로 놀이동산도 가고, 과학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아이 한 명이 오면, 동생이 또 오고, 친구 데려오고…. 그렇게 입소문으로 이어져 지금까지는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찾아오긴 해요.”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상황을 이곳이라고 피해 갈 수는 없다. 아이들이 점점 줄면서 한때는 공부방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도 했지만, 공부방 1호라는 사명감과 여전히 이곳을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단 한 명일지라도 찾아오는 아이에게 이제 그



사랑과 정성을 담은 반찬 도시락

만 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아무도 찾지 않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아이들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홀로 남은 노인들이다. 혼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해 저 아래 복지관 식당조차 가지 못하는 27가구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품 대신 스테인리스 도시락에 담아 배달한다.

“매일 같은 반찬만 드시는 할머니들, 특히 할아버지들에게 맛이 있든 없든

우리가 정성껏 만든 반찬 4가지 정도 해다 드립니다. 행복해하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가끔은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냥 계속합니다.”

반찬 도시락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위로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명과 정체성

“처음엔 너무 두려웠죠. 사회복지 사도직 경험도 없었던 데다가, 지붕이 날아가고, 보일러가 터지고.... 일이 끊이지 않아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이곳은 돌아서면 하느님 손길이, 하느님 얼굴이 보입니다. 덕분에 제 신앙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숙 빅토리아 수녀(센터장)

“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저 선택하셨듯이, 수도자의 길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삼양동 등지에서 빈민 사도직을 계속 해 왔는데, 그분께서 또 불러 주셔서 기꺼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은 공부방 담당으로 교사 부재 시 아이들 수업도 대신 맡고,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합니다.”

곽희자 잔다크 수녀

“도시 빈민 사도직을 하다가 최근에 이곳에 왔어요. 과거에 비해 국가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지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수도자가 한 동네에 살면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며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비비안나 수녀

해돋이 공부방이 만든 변화와 성장

공부방을 찾는 아이들은 사실 학업 성취보다 더 중요한 인성과 경험을 쌓는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아이였지만 모래놀이와 심리 상담을 통해 점차 좋아지는 모습, 처음에는 불러도 못 들은 채 하고, 웃지도 않던 아이가 먼저 다가와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돕고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 이 사소한 변화가 이곳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 수녀님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체감하며,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으니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공부방을 졸업한 아이들과 대학생 봉사자들의 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

거리 중 하나. 해돋이 공부방에서 자라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작년까지 아이들을 돌본 봉사자, 그리고 대학생 봉사자에서 결혼 후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공부방 컴퓨터를 책임지는 든든한 후원자. 이들은 하나같이 해돋이 공부방에서 느꼈던 행복감과 경험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다.

“하루는 한 청년이 과자를 잔뜩 사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릴 때 해돋이 공부방에 다녔는데, 수녀님들 몰래 과자를 많이 훔쳐 먹었다면서요. 결혼할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지 뭐예요. 그때 계시던 수녀님은 자리를 옮겨 이젠 안 계시실 거라는 걸 알지만 여자친구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었다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부방

해돋이 공부방의 운영은 수도자들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도자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기에, 공부방은 늘 ‘함께’의 자리로 열려 있다. 교구에서 큰 몫의 지원을 해 주고, 자원봉사 교사, 후원자,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지켜간다. 어떤 이는 매달 작은 정성을 보내고, 단체에서는 한 번에 큰돈을 후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직접 찾



미술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공경원 마틸다 자매
(성모자매회 부산지부)

아와 힘을 주기도 한다.

사실 요즘은 교사 구하기가 영 힘들다고 한다. 공부방 자원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대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랴 취업 준비하랴 여러 일로 바빠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봉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삶이 안정된 중년의 어른들이 시간을 쪼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놀고, 삶을 나눈다. 이 와중에 교직에 몸담았다가 막 은퇴한 분이 우연치 않은 기회에 봉사하러 왔다가 이후로 계속

교사로 봉사하게 되는 놀라운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모자매회 부산지부 회원 중 한 명도 현재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해돋이 공부방은 함께 나누는 사랑의 현장이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가난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겹게 사는 이들이 많은데 눈이 가려져 못 보기도 하고, 또 애써 안 보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나눔을 실천해야 할 대상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곽 잔다크 수녀

“나누어야 할 것이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외로운 분들, 고립된 분들에게로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나누어야 할 것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비안나 수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누며 산다는 것에 감명 받



해돋이 공부방의 희망, 아이들의 은총 잔치

을 때도 있어요. 후원자 중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도 꽤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고요. 아무 조건 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그러니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 빅토리아 수녀

해돋이 공부방은 그 이름처럼 가난 속에서도 희망의 해가 떠오르는 장소이다.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희망,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의 희망,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외롭지 않다는 위로의 희망이 되어왔다. 그렇게 40년 이상 이

어온 나자렛 정신은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의 마음과 삶을 감싸안은 따뜻한 등불이 되어 여전히 청학동 산자락에서 빛나고 있다. 수녀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빛을 밝히는 한, 해돋이 마을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이다.



해돋이 공부방 수녀님들과 자매회원들





한마음 한뜻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게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걷네

모든 나라 모든 말과 민족
당신 말씀 빛을 찾네
상처 입은 자녀들을
당신 아들 품에 안아 주시네

나의 위로 자애로운 주님
당신 빛이 우리 비추시네
새 하늘 새 땅 열고
주님 성령 생명 자유 주시네

눈을 들고 나아가리라
주님 때가 다가오네
사람 되신 아들 안에
많은 이들 길을 찾아 나서네

2025년 회년 공식 주제가
〈희망의 순례자들〉

수도회 소식

베트남
화빈대학 내방
2025. 8. 28.



▲ 2023년 8월 우리 수도회와 MOU를 체결한 베트남 화빈대학의 요셉 하 당 딘 교장 신부가 올해도 교직원 및 학생들과 함께 본원을 방문했다.

2025년
순교자 성월 맞이
말씀 전례
2025. 8. 31.

▶ 순교자 성월 카드를 뽑고, 신앙 선조들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메리놀 수녀회
내방

2025. 9. 19.



▲ 우리 수도회 초창기 양성을 도왔던 메리놀 수녀회의 젊은 후배 수녀들이 본원을 방문했다.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깊은 인연을 이어온 메리놀 수녀회에 수도 공동체를 대표해 감사와 환대의 마음을 전했다.

수련소
생명평화순례

2025. 10. 23.



◀ 수련소에서 창조 세계와 의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에 담아 하루 일정으로 우포늪 생명평화순례를 다녀왔다.

한국 천주교회
축성 생활의 해
폐막 미사
2025. 10. 28.

한국 천주교회 축성 생활의 해 폐막 미사가 이용훈 마티아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주례로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다. 우리 수도회 수련소와 서원 수녀들, 성모자매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하느님 안에서 ‘평화의 길 위에 선 희망의 순례자’로 지속적인 여정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 ▶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회장인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가 축성 생활의 해를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고 있다.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2025. 11. 2.



- ▲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맞아 본원 평화의 동산에서 천상에 계실 목요안 몬시뇰과 메리놀 수녀회 수녀들, 장정은 악니다 수녀, 서원석 요셉 수녀를 비롯한 별세한 우리 수도회 수녀들과 성모자매회 회원들,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척, 은인,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 ▶ 위령성월 첫 주간을 맞아 수련소와 서원 수녀들은 천주교 용인추모공원에 있는 우리 수도회 묘원을 방문하여 별세한 수녀들을 기억하며 연도를 바쳤다.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방문
및 성지 순례
2025. 11. 4.

- ▶ 은이성지 김가향 성당 앞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신앙 터전이었던 용인시 처인구 은이 성지와 골배마실 성지를 돌아보며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어준 신앙과 고되지만 멈추지 않았던 발걸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렸다.



백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2025. 11. 9.



- ◀ 수도회 설립 93주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수도회는 설립 100주년을 앞서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자 백주년준비위원회(이하, 백준위)를 구성하고 모임을 갖고 있다. 이번 백준위 전체 모임에서는 2025년 활동 보고와 차기년도 계획과 구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54주년
설립 기념일
2025. 8. 29.



▲▶ 설립 기념일을 맞아 성모자매회 찬양팀이 미사 중에 처음으로 성가 봉사를 시작했으며, 모임과 나눔 시간에는 6명의 회원이 '성모자매회 회원으로의 삶'에 대해 발표했다.



종신서약
준비 피정

2025. 10. 11-13.



▶ 종신서약을 준비하는 11명의 자매회원이 해화동 성령 선교수녀회 선교영성센터에서 2박 3일 동안 준비 피정을 했다.

제18회
종신서약식

2025. 10. 13.



▶ 10월 월봉헌일에 정릉 본원 성당에서 서울본부 9명, 부산지부 2명의 자매회원이 종신서약을 했다.



연례 피정

2025. 11. 11-12.



▲ 수지성모교육원에서 1박 2일 동안 연례 피정을 했다. 이번 피정에서는 최안나 스피리따 수녀의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묵주기도 통경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8시 자매회원들은 비대면(ZOOM)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를 지향으로 묵주기도 통경을 바치고 있다.



평신도 협력

2025. 11. 1.

◀ 매월 첫째 토요일 본원에서 진행되는 수도원 체험 피정에서 자매회원들이 담당수녀들을 도와 봉사한다.

월봉헌일
2025. 8. 25.

- ▶ 수도회 설립 100주년(2032. 6. 27.)까지 기도로 순례하는 여정을 안내해 줄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 소책자를 받고 기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연례 피정
2025. 9. 29.



- ◀ 경상북도 청도 성모솔숲마을에서 피정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다.

| 간가리 |

- ▶ 간가리 공소에서 완타 예수성심본당 유리 신부 집전으로 2명의 자매가 입회식을 했다.



입회식
2025. 9. 16.

월봉헌일
2025. 10. 2.



- ◀ 요셉동에서 월봉헌을 마친 자매회원들이 수녀원에서 추수한 바나나를 나누어 먹었다.

| 비야 엘 살바도르 |

▶ 기적의주님공소에서크
리스토발 메히야 주교
집전으로 7명의 자매
가 첫 서약을 했다.

제53회
첫 서약식
2025. 9. 21.



월봉헌일
2025. 10. 8.



◀ 첫 서약식 후 처음 맞은 월봉헌일에
단복을 입은 자매회원들이 기념 촬영
을 했다.

| 칸또 그란데 |

▶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공소
에서 호르헤 주교 집전으로
페루 해외 선교 30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한 후 8명의 자
매가 입회식을 했다.

첫 입회식
2025. 9. 13.



월봉헌일
2025. 10. 5.



◀ 입회한 자매들이 소성무일도를 배우고 함께
기도했다.

| 시애틀 |

- ▶ 펠리세이드 피정센터에서 김다울 클레멘스 신부 주례로 2명의 자매회원이 총원장 수녀와 공동체 앞에서 종신서약을 했다.

제18회
종신서약식
2025. 9. 28.



월봉헌일

2025. 10. 19.



- ◀ 목주기도 성월인 10월의 월봉헌일을 맞아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에서 목주기도를 바쳤다.

총원장 수녀와의 만남

2025. 9. 7.



- ▶ <은총의 50년, 성모자매회의 삶과 사명>을 읽고, 강의를 들었다.

| 남가주 |

- ◀ 미주 지역을 방문한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와의 만남 후 성서모임센터 성모동산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월봉헌일
2025. 10. 19.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글 | 이명자 엘리사벳(춘천교구 속초 교동성당)



본당 주보성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

속초 교동성당 성모회는 올해 순교자 성월을 맞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수도원 체험 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은 우리 교동성당 주보성인이기도 할뿐더러 본당 수녀님들 역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파견된 분들이라 서울 정릉의 수도회 본원으로 피정을 떠나는 내 마음은 특별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평소 교통 체증이 극심하다는 도로 위에서조차 하느님께서 길을 닦아 주신 것처럼 시원하게 뚫렸고, 그 덕에 여유롭게 수도원에 도착한 우리들을 수도회 수녀님들과 재속회인 성모자매회 자매님들이 정문에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다.

정릉 성모교육원 1층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과 성체가 모셔진 경당에 들어서는 순간, 19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하루 앞두고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던 그날의 내가 떠올랐다. 당시 나는 불교 신자였음에도 큰 수술을 앞두고 세상의 모든 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에 병원 4층에 있는 성당 안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 순간 왼쪽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훅 들어왔던 놀라운 경험이었다. 사느라 바빴던 나는 엄마의 품속 같은 작은 경당에서, 아팠던 마흔다섯 살에 체험한 큰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며 수도원 체험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지금 여기

예쁜 말씀 카드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느님 말씀을 품고서 몸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도 봉헌하고, 찬미의 시간에는 성가 가사를 되새기면서 노래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 성가 〈아무것도 너를〉 중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을 부를 때 수술 후 겪어낸 아픔과 7년째 본당 전례단장으로 봉사하며 공동체 안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도록 다짐도 했다. 가을비 속에 우산을 쓰고 침묵 중에 수도원 뒷동산을 산책하는 시간은 무척 매력적이었다.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왔나 되돌아보고, 큰 병을 이겨낸 나를 오늘 이곳에 불러 주신 주님과 인도해 주신 성모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연약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위해 이 시간을 봉헌했다.

말씀과 침묵 기도,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고, 일상을 떠나 수도자들과 함께 기도한 모든 순간이 감사했고, 또 특별했던 수도원 체험은 잔잔한 울림이 되어 주님 뜻에 따라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딸로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픈 나의 삶과 신앙 안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본원 성당에서 기도하는

속초 교동성당 신자들 2025. 9. 19.



김충희 호세아 수녀와 교동성당 이수진 수진엠마 수녀가 함께한 찬미의 시간



촉촉하게 내리는 가을비 속에서
수도원 뒷동산을 산책하는 신자들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

강경숙	김동석	김영숙	김춘자	민옥기	서복순	양성후	유찬영	이미선	이정현
강대환	김동순	김영애	김춘희	박기분	서연희	양영은	유태안	이미정	이정효
강미진	김말순	김영옥	김태권	박기자	서은정	양정희	유한진	이민희	이정희
강민경	김명애	김영자	김태호	박동규	서주혜	양현숙	유희정	이봉수	이제식
강상옥	김명희	김옥순	김태희	박문규	선군자	엄경용	육희수	이상득	이주원
강설순	김미경	김옥자	김택신	박미숙	성경숙	엄해옥	윤경임	이상분	이종길
강영옥	김미원	김용각	김현경	박상란	성낙훈	오나래	윤대인	이상일	이지영
강현숙	김미자	김용규	김현동	박선영	성하림	오두현	윤명자	이석순	이지희
고경옥	김미희	김유미	김현미	박소영	손병윤	오미숙	윤미숙	이선근	이진태
고순례	김범수	김유정	김현숙	박수현	손상운	오성애	윤선미	이소연	이춘화
고예리	김병이	김윤순	김혜숙	박영진	손주영	오승목	윤성업	이수진	이현재
고현순	김상희	김은순	김호중	박영철	손춘영	오은미	윤시림	이순영	이현숙
공석초	김석용	김은실	김효선	박인철	손한수	오은희	윤재성	이승분	이현희
곽숙자	김석준	김은영	김희숙	박재숙	송미경	오정애	윤혜련	이연심	이혜주
곽신영	김 선	김은희	김희순	박정숙	송순미	오진숙	윤혜연	이영미	이혜진
곽옥자	김 숙	김인배	나승경	박정자	송윤경	오창선	윤홍자	이영빈	이희병
곽정희	김소각	김인순	남경순	박준희	송윤복	오해영	이경진	이영원	이희정
구현민	김소정	김재숙	남규보	박진희	송주라	오현정	이경희	이영주	임건호
권 진	김수연	김정미	남기란	박참슬	신 숙	우정자	이관우	이영환	임명숙
권분연	김수진	김정순	남윤건	박해진	신상희	원미자	이그림	이용순	임미숙
권선미	김숙연	김정애	남일현	박형호	신성옥	원정원	이까리파스	이우창	임민아
권오분	김순례	김정옥	노치권	박혜경	신정택	유병주	이덕아	이윤자	임상무
권태영	김순희	김정자	동경자	박혜신	심금화	유성분	이덕원	이은경	임석수
권혜란	김승현	김종률	류원백	박화순	심재경	유은이	이말금	이은영	임순영
권화집	김시연	김종석	문금주	배순원	심정희	유재숙	이명분	이은정	임승옥
김금련	김안선	김종옥	문복자	배차남	안대인	유정선	이문희	이은홍	임영규
김기복	김연숙	김진원	문태성	백인자	안장현	유정현	이미경	이재숙	임윤자
김남수	김영경	김진한	민병지	변원복	양경철	유지영	이미나	이정민	임정화
김남필	김영섭	김차선	민영석	서명동	양규진	유진희	이미령	이정연	임지원

임 화 용	전 광 련	정 성 진	정 진 문	조 옥 현	차 경 자	최 안 나	최 해 인	한 승 현	홍 도 경
자 효 경	전 정 민	정 성 희	정 춘 자	조 은 경	차 윤 수	최 연 옥	최 혜 식	한 인 숙	홍 문 숙
장 년 수	전 종 성	정 수 훈	정 태 아	조 인 숙	차 윤 지	최 영 림	최 홍 원	한 재 범	홍 보 근
장 문 구	전 주 리	정 순 남	정 혜 자	조 정 순	차 재 룡	최 영 주	최 희 순	한 진 규	홍 순 필
장 복 념	전 주 윤	정 애 경	조 건 현	조 향 순	차 효 경	최 윤 숙	표 순 분	한 진 선	홍 은 정
장 세 현	전 주 희	정 연 숙	조 경 배	조 현 숙	채 현	최 윤 혜	하 광 희	함 희 분	홍 진 숙
장 원 실	전 춘 실	정 연 택	조 규 하	조 혜 옥	천 용 환	최 은 경	하 동 기	허 남	홍 진 일
장은유	정 광 영	정 영 진	조 동 호	조 휴 동	최 슬	최 의 순	하 애 란	허 윤 희	황 규 택
장 재 연	정 대 진	정 윤 희	조 미 원	주 비 호	최 경 옥	최 일 혜	하 재 철	허 희 선	황 승 옥
장 재 원	정 미 다	정 은 숙	조 성 희	주 재 로	최 금 란	최 제 원	한 경 옥	현 복 자	황 애 현
장 후 남	정 민 경	정 의 정	조 송 자	주 하 나	최말가리다	최 지 현	한 구 병	현 은 아	황 윤 서
장 희 윤	정 민 희	정 정 순	조 영 광	지 경 미	최 미 수	최 진 옥	한 기 철	현 정 일	황 윤 자
장 희 정	정 설 령	故정정희	조 영 이	진 기 순	최 복 희	최 진 희	한 나 일	현 진 호	

(주)유나이티드	리치로지스틱스 이근	부산교구 성바오로성당
(주)인동FN	문우당서점	부산교구 안락성당
(주)주영화학	병원사목위원회	부산교구 우정성당 빈첸시오회
(주)지후	성모자매회 서울본부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광화
(주)한양정밀	성모자매회 부산지부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빈첸시오회
(주)홍진경	성모자매회 씨애틀지부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
대방수산(주)	수지 고르다	부산교구 천곡성당
ABC동호회	유일화사	부산교구 청학성당
김성기(최규분)	이룸스틸	서울대교구 강일동성당 성서모임
김정선(성경후)	이태원(시원유통)	서울대교구 도곡성당 성서모임(저녁)
김태연(김지후)	제이엔지쥔이엘	서울대교구 한강성당
미소희(김나현)	청학119 안전센터	수원교구 범계성당 21구역
서지현(윤지원)	항만구조대	수원교구 범계성당 빈첸시오회
이재환(고은실)	해사고등학교	의정부교구 백석동성당 빈첸시오회
조예진(김태은)	성서모임 4지역	천주교 대구대교구 유지재단
조예진(조베로니카)	성서모임 6지역	춘천교구 임당동성당 빈첸시오회
최기중(김옥순)	인천성서모임	해외선교후원회
허토마스(편율리안나)	정릉성서모임 99차사랑의예물	
나보타스강학회	흑석동성서모임 73차예물	이외 다수의 익명 후원자
등나무	부산교구 명지신도시성당	
로이드선급협회	부산교구 서대신성당	

국 내

영원한도움의성모의집 해돋이공부방

49032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돋이3길 412 (청학동)
T. 051-416-1361

- 김재숙 빅토리아 수녀
M. 010-2044-0243

H.O.M in 수지

1682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63번길 10
(동천동)

- 오현주 벨벳뚜아 수녀
M. 010-9240-4627

영원한도움 평화센터

03076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51 (혜화동)

- 이선중 로마나 수녀
M. 010-8701-0369

해 외



베트남 VIETNAM

호치민

HO CHI MINH

174/35 Tam Châu, Tâm Bình, TP Thủ Đức,
TPHCM 71300 VIETNAM

- Sr. Mariann Kim, SOLPH(김미라 마리앤 수녀)
M. +84 76 907 4487
E. rose-mira@hanmail.net
- Sr. Cyrilo Kim, SOLPH(김재숙 시릴로 수녀)
M. +84 76 861 0247
E. skgod299@hanmail.net

다낭

DA NANG

Số 20 Trần Hữu Độ Phường khuê Mỹ, TP Đà
Nẵng, 550000 VIETNAM

- Sr. Maririta Kim, SOLPH(김희자 마리릿타 수녀)
M. +84 90 378 6101
E. kimheeja1214@gmail.com
- Sr. Clara Back, SOLPH(백미현 클라라 수녀)
M. +84 78 949 1860
E. cl583@hanmail.net



카자흐스탄 KAZAKHSTAN

탈디코르간

TALDYKORGAN

Katolic Church Biazhan sal 145 Taldykorgan
140008, KAZAKHSTAN

T. +7 7282 245 002

- Sr. EunyongTheresa Oh, SOLPH
(오은영 은영테레사 수녀)
M. +7 775 960 2731

E. eyt633@hanmail.net

- Sr. Salesia Han, SOLPH(한성숙 살레시아 수녀)
M. +7 702 196 1770

E. hansalesia@daum.net

- Sr. Faustina Kang, SOLPH
(강정숙 파우스티나 수녀)

M. +7 775 694 2019

E. Srfaustina@hanmail.net



페루 PERU

깐가리

CANGARI, HUANTA-AYACUCHO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10, Huanta Ayacucho, PERÚ

H. cafe.daum.net/solph-peru

E. cangariperu@hotmail.com

- Hna. EunkyungAgnes, Park
(박은경 은경아녜스 수녀)

M. +51 932 449 968

- Hna. Marie Hucco Kim
(김향련 마리후코 수녀)

M. +51 958 733 136

E. mhucco07@gmail.com

비아 엘 살바도르

VILLA EL SALVADOR, LIMA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0066, Lima 35, PERÚ

T. +51 1 292 2327

H. cafe.daum.net/solph-peru

E. villaperu@hotmail.com

- Hna. Clarisa Lee(이순옥 클라리사 수녀)

M. +51 937 411 504

- Hna. Lisa Song(송선영 리사 수녀)

M. +51 958 736 605

리마 선교센터

CANTO GRANDE, LIMA

Jr.Carlos De Los Heros 738 Pueblo Libre 15084, Lima, PERÚ

T. +51 1 359 5855

- Hna. Speranza shin(신영애 스페란자 수녀)

M. +51 920 753 030

E. smsprz@hanmail.net

- Hna. Immanuel Park(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M. +51 986 501 518

E. manuel592@hanmail.net



필리핀 PHILIPPINES

나보따스

NAVOTAS

San Lorenzo Ruiz Parish(Tahanan ni Maria) Phase 1-C Kaunlaran Village, Navotas 1409 Metro Manila, PHILIPPINES

T. +63 2 8652 7714

H. cafe.daum.net/solphphilppin

- Sr. Gabriela, SOLPH(김영선 가브리엘라 수녀)

M. +63 969 174 6992

E. gabi59@hanmail.net

- Sr. Judith Joung, SOLPH(정명숙 유딧 수녀)

M. +63 939 332 4146

E. ju395@hanmail.net

- Sr. Luce Kim, SOLPH(김민정 루체 수녀)

M. +63 960 554 1272

E. sisterluce@hanmail.net

- Sr. Josephine Choi, SOLPH(최지영 요세핀 수녀)

M. +63 928 421 0722

E. josephine.657@daum.net



조향순 소피아, 「위티콘」, 스위스 취리히, 2012

후원 문의

국 내

02706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정릉동)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T. 02-2171-1657

한진선 요셉데레사 수녀
M. 010-2082-6035
E. srjthan@hanmail.net

- 후원자 중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미주지부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U.S.A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U.S.A.
T. +1 714 521 1345

Sr. Emma Jeon, SOLPH
(전배경 엠마 수녀)
M. +1 714 383 3585
E. emma2171@hanmail.net

- 미국에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은
미주지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후원금 송금

국내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038659-00305
국민은행 036137-04-005886
신한은행 100-027-67786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해외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910004-74004
국민은행 036137-04-001127
신한은행 140-006-01075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02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2-18, Solsaem-ro, 15ra-gil, Seongbukgu Seoul 02706, Rep. of Korea
T. +82 2 2171 1500 | F. +82 2 2171 1629